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수칙

<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개요 >

◈ 조류인플루엔자(AI)는 닭, 오리,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전신성, 호흡기성 질병

◈ 폐사율 등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AI와 저병원성 AI로 구분

◈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, 물, 분변 등에 묻어있는 AI 바이러스의 직접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

◈ AI 바이러스는 고온, 세정제 및 소독제에 의해 사멸됨

◈ 분변에 오염된 AI는 4℃에서 35일간 생존하며, 호수 등 물에 오염 시 22℃에서 4일간, 0℃에서 30일간 생존

※ 가금육은 75℃에서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가 사멸함

◈ 야생조류는 일반적으로 AI 감염시 증상이 없으나, 일부 조류는 행동이상, 보행이상, 급성 폐사를 보임

※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조류는 무증상 돌연사, 설사, 구토, 쇠약, 행동이상(머리 기울임, 머리 및 목 비틀기), 보행이상(기립 및 날개짓 불능)을 보임

◈ 행동이 이상한 조류나 폐사체 발견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

※ 신고처 : 지자체 환경과, 유역(지방)환경청 자연환경과,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,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

<일반 국민, 탐조객>

❑ **야생조류, 야생동물 직접 접촉 유의**

❑ **철새도래지 방문, 탐조, 축제 참가 시 여벌의 활동복, 신발, 신발 커버, 모자 등을 준비하고, 활동이 끝나면 탈의 후 비닐에 담아 밀봉**

※ 일회용 보호복(방역복 등) 착용을 권장하고, 일회용 물품은 폐기, 나머지는 세척

❑ **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한 철새서식지와 AI 발생농가 인근 철새 서식지역 접근 자제(논·밭·저수지 등 포함)**

※ 경고표지판, 출입금지띠 등으로 통제 조치된 곳은 출입 금지

❑ **철새서식지,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바람에 깃털·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. 특히,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**

※ 분변에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세정

❑ **야생조류가 사람·차량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**

❑ **개인적 판단에 의해 임의로 야생조류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**

※ 환경단체 등에 의한 먹이주기는 환경부·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수

❑ **철새도래지에서 과도한 소음 유발, 취사·흡연, 총·돌을 이용한 철새 위협 등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(철새이동·분산으로 AI확산 우려)**

❑ **호수, 저수지, 만(灣), 강, 하천 등에서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경우와 AI발생 지역에서 낚시 금지**

❑ **철새서식지에서 탐조를 마치고 서식지를 벗어날 시 신발세척·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**

※ 발열 등 계절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치료

❑ **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시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관할 유역[지방]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신고**

<지자체 [환경부서] 등>

❑ **AI 발생 철새서식지와 AI 발생농가 인근 철새 서식지역에 대해 접근 금지(현수막 설치 등)**

※ 특히,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한 지역의 출입 금지 조치

❑ **야생조류에서 AI 발생시 철새서식지에서 행사 개최 자제(관할 지역에서의 AI 발생 여부와 무관)**

※ 대규모 유동인구로 인한 야생조류 분산, 행사 참가자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등 우려

❑ **필요한 경우 농가와 이격된 대규모 철새서식지 위주로 먹이주기 시행(먹이 고갈에 따른 야생조류 분산 방지 목적)(환경부 사전협의)**

※ 단, AI가 발생한 철새서식지에는 먹이주기 금지

○ **먹이주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시, 방역복 등 보호장구 착용 및 소독, 일회용 물품 폐기 등 관리 철저**

❑ **철새를 분산시키는 서식지에 대한 직접적 소독 행위(소독차량, 항공방제 등) 및 과도한 소음 유발(차량, 확성기 등) 금지**

❑ **야생동물 구조시 수의사 육안 확인, 오염 확산 방지 조치 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반입**

❑ **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야생동물질병 진단기관에 검사 의뢰**

❑ **발열 등 계절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치료**

<연구자/현장조사요원> : 야생조류 AI 예찰 시 현장 주의 수칙

❏ 야생조류 관련 작업시 음식물 섭취·흡연 금지

❏ 오염된 체액에 점막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(흡입, 경구섭취, 눈 유입, 피부 상처 접촉 등)

❏ 뜨거운 물과 비누로 작업 전과 후 손 세척, 작업시 노출되거나 오염된 피부 즉시 세척

※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콜 기반의 손세정제를 사용

❏ 야생조류 분변, 폐사체 등 시료 채집 시 작업복과 보호장비(장화, 장화커버, 방역복, 장갑, 마스크, 고글, 머리커버 등) 착용

※ 일회용 보호장비 착용을 권장하고, 일회용이 아닌 모든 물품은 철저히 세척·소독

❏ 개인 보호구는 착용 순서와 탈의 순서를 준수

※ 착용 : 방역복→헤어커버→앞치마→장화커버→마스크→고글→장갑(이중)

탈의 : 외측장갑→고글→앞치마→장화커버→방역복→ 마스크→헤어커버→손세척

❏ 작업이 끝난 후 작업복과 보호장비는 소독하여 탈의하고, 이중 봉투에 담아 밀봉(폐기봉투와 재사용품 용기를 각각 준비)

※ 세제와 AI에 효과적인 살균제를 이용하여 재사용품 세척 및 살균

❏ 조사 현장을 떠나기 전 사용한 도구와 차량 타이어 등 소독

❏ AI 검출 폐사체와 관련 도구 일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

❏ 작업 수행 후 발열 등 계절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치료

<농가> : 농식품부 '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' 활용

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

1 농장 내·외부를 매일 소독하고,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

*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,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

2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·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·착용

3 농장경계, 축사,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

* 계분벨트, 팬 공간, 배수로,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

4 축사·왕겨창고·퇴비사의 출입구·벽면 등은 야생조류·야생동물이 드나들 수 없도록 틈새 보수 등의 차단관리 실시

5 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

6 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AI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

* 쥐 등 야생동물은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

7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·소독 철저

*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

8 농장 내에는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·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·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

9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·밭·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 자제

10 축주·종사자가 경작지를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, 작업복 교체, 착용 신발·세척·소독 및 세안·손씻기 철저